

보 도 자 료



◆ 2024. 4. 15. (월요일) 배포

◆ 총 2쪽 (본문 2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강민구 홍보실장

☎ 032-770-8631
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

☎ 032-770-8637

“극지가 미래다” 극지연구소 20주년

극지연, 15일 인천 송도 청사에서 기념식 거행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오는 16일 (화) 극지연구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.
- 극지연구소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,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문을 연 이후, 극지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총괄하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4월 16일 부설 기관으로 설립됐다. 극지연구소의 모태는 1987년 해양개발연구소(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)에 설치된 극지연구실이다.
- 극지연구소는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(2009년)와 남극대륙의 첫 번째 기지* 장보고과학기지(2014년)를 만들면서 활동 무대를 크게 넓혔으며,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가치 발굴, 지구형성의 역사 복원 등 극지에 특화된 과학연구를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했다.
 - * 세종기지는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, 대한민국은 장보고기지 설립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보유한 국가로 등극
- 2021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극지연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,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극지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. 극지활동진흥법에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제협력, 인재 양성, 경제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.

- 극지연구소는 해외 유명 저널에 매년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, 논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향력지수 (IF, impact Factor)의 평균값은 2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졌다.
- 1, 4대 극지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예동 박사는 지난 2021년 아시아 최초로 '남극연구과학위원회 (SCAR)' 의장으로 선출됐는데, 극지연구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.
- 극지연구소는 15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극지연구소 청사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,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인천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극지연구소의 스무 살을 축하할 예정이다.
- 극지연구소의 지난 역사를 정리한 "극지 도전, 그 스무 해의 기록"과 20년간의 대표 성과를 선별해 모은 성과집 "극지연구소 20년 스무 가지 이야기"도 서적으로 펴내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"극지연구소의 20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과학자들의 노력,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. 지난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,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앞날에 진정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"며 소감과 포부를 전했다.